

경찰공무원의 피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igu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olice Officers

주재진

동국대학교(경주) 행정경찰공공학과

Jae-Jin Joo(joojaejin1@hanmail.net)

요약

이 연구는 그 동안 조직 구성원들의 피로도와 피로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Saito(1999)의 전체설문을 사용한 연구와 조직몰입의 하위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의 피로도 수준을 측정하고 피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 신체적 부조화)를 독립변수로, 조직몰입(감정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는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Saito(1999)의 전체 척도를 사용하고, 조직몰입의 하위변수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조직 관리자에게 피로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더 나아가 조직관리 관점에서 보면, 경찰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재직기간이 5-10년이며, 계급이 경장과 경사인 경찰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조직차원에서 측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정신적 피로 | 육체적 피로 | 감정몰입 | 지속몰입 | 규범몰입 |

Abstract

Al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ed researches on the effect of fatigue among organization members on organizations, there has been an absence of studies on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using Saito(1999)'s whole questionnair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level of fatigue among police officers and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fatigu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fatigue(mental fatigue and physical fatigue) of police officers and physical disharmony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was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meaning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the first study, which used Saito(1999)'s whole scale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variabl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also confirms the importance of fatigue management for organization managers.

Second, from a perspective of organization management, this study implies that effort should be made to measure fatigue of police officers, who have 5 to 10 years of service and work as Senior patrol and sergeants and manage it actively on an organizational level, and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their attitudes towards organizations.

■ keyword : | Mental Fatigue | Physical Fatigue | Affective Commitment | Continuance Commitment | Normative Commitment |

I. 서론

위험상황이 없다면 경찰은 존재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험’이라고 하는 경찰 존재의 이유 때문에 경찰은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고립성, 조직성, 권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은 강한 체력을 요구받으며, 타 분야의 공무원들에 비해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위험의 방지와 범죄의 진압이라는 권력 작용적 업무를 수행(부정적 감정표현)함과 동시에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친절과 봉사(긍정적 감정표현)를 요구받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감정적 일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감정노동자 이기도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은 정신적인 노동 강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1]. 위와 같은 경찰의 직업적 특성은 경찰공무원들은 쉽게 피로하게 만든다.

인간이 느끼는 피로는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된다. 하지만 이러한 피로가 관리되지 않으면 만성피로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그 개인이 속한 조직적으로는 성과저하의 원인이 된다. 피로에 지쳐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관리자는 경찰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경찰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피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피로도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Pearson의 연구[2]를 시초로 하여 일본의 산업피로연구위원회의 연구 등으로 발전하였으며[3], 주로 피로도가 조직효과성이나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진행되어 왔다[4].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는 다차원 피로척도(MFS: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를 활용한 정우일의 연구[5]와 일본의 산업피로 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피로 자각 증상표(Subjective Symptoms of Fatigue Test) 20문항을 사용한 박병두[6]의 연구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경찰공무원의 피로도 측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피로의 영향

요인과 피로의 매개요인에 중심을 두고 진행한 연구였기 때문에 원래 개발된 척도를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생략해서 사용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Saito (1999)[3]의 일본 산업안전보건협회 산업피로도 연구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30개 항목 전체를 한국의 경찰조직에 맞도록 수정,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피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피로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위하여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차원의 합리적 경찰공무원의 피로도 관리전략을 모색하고, 경찰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장기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피로도에 대한 논의

1) 피로도의 의미

피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현상일 것이다. 피로는 사전적으로는 “지나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운이 빠져 지쳐 있는 상태” 또는 “힘든 일을 수행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정의된다. 일정수준의 피로는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을 통해 회복되지만, 육체나 정신을 한계 이상으로 혹사시켜서 만성피로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체 기능의 저하로 졸도하거나, 심각한 경우 파로사로 이르게 된다.

산업보건학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노동에 의해 야기되는 피곤함”으로 정의되며, 피로도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욕저하 또는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감소로 연결되는 정신적·육체적 기능의 저하상태”로 정의된다[7].

2) 피로도의 측정지표

피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일차원(unidimensional)적 도구 개발에서 시작하여 피로의 수준, 지속기간, 피

로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multidimensional)적 도구개발로 발전되어 왔다[8]. 피로도의 측정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피로도의 측정지표

연구자	측정지표
Chalder, et al.(1993)[9]	피로 척도(The Fatigue Scale: FS) 14개의 문항, 2개 척도로 구성(육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
Schwartz, et al.(1993)[10]	피로 평가 조사(The Fatigue Assessment Inventory: FAI) 29문항, 4개 척도로 구성(일반적 피로, 상황적 피로, 심리적 피로의 결과, 휴식/수면에 대한 반응)
Christensen & Ouellette (1995)[11]	활력 조사(The Vitality Inventory: VI) 22문항, 2개 척도로 구성(탈진, 활기)
Smets, et al. (1995)[12]	다차원 피로 조사(The Multidimensional Fatigue Inventory: MFI) 20개 문항, 5개 척도로 구성(일반적 피로, 육체적 피로, 활동 저하, 동기 저하, 정신적 피로)
Saito(1999) [3]	일본 산업안전보건협회의 30개 문항, 3개 척도로 구성(육체적 피로(10개 문항), 정신적 피로(10개 문항), 특정한 감각, 신경과 관련된 증상(10개 문항))
장세진(2000)[8]	Schwartz, et al.(1993)의 척도를 번역,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19개 문항으로 정리
박병두(2008)[6]	일본의 산업피로 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피로 자각 증상표(Subjective Symptoms of Fatigue Test) 20문항, 2개 척도로 구성(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정우일(2008)[5]	장세진(2000)의 19개 문항 사용
최응렬박주상(2010)[13]	Checklist Individual Strength(CIS) 20개 문항, 4개 척도로 구성(피로정도, 동기, 육체활동저하, 집중력 감퇴)
김순삭이도선(2013)[14]	18개 문항, 3개척도로 구성(일반적인 피로와, 상황적 피로, 피로에 의한 결과)
박주상(2013) [15]	Checklist Individual Strength(CIS) 20개 문항, 4개 척도

※ 연구자 재구성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피로도의 측정지표는 대부분 3-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측정지향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Saito(1999)의 3가지 척도를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의 측정도구로 사용하고 하였다.

2. 피로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우일(2007), 박병두(2008) 등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경찰공무원의 피로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피로도가 조직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13].

경찰공무원의 피로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 중에 종속변수로 조직몰입을 사용한 연구는 박병두(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박병두(2008)의 연구는 조직몰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 “직장에 대해 애착”, “직장의 의미”라는 세 가지 문항만을 가지고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감”으로 정의되는 감정몰입과[16], “조직과 관계를 지속하려는 성향”으로 정의되는 지속몰입[17], 마지막으로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는 내적 규범체계”로 정의되는 규범몰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피로도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의 척도들을 구별하여 측정해보고, 이러한 피로도가 구체적으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려 했다는 점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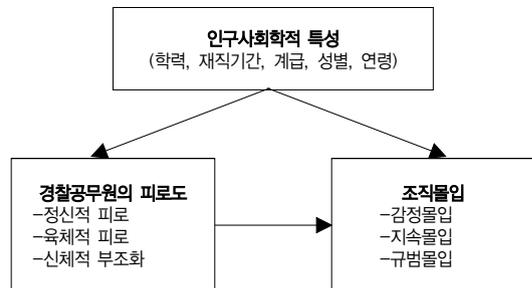


그림 1. 분석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 신체적 부조화)를 독립변수로, 조직몰입(감정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 가설의 설정

가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와 조직몰입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경찰공무원의 피로도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표는 경찰공무원의 피로도는 Saito(1999)[3]가 사용한 30개 문항을, 조직몰입은 O'reilly, & Chatman(1986)[16]과 Allen, & Meyer(199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12문항(감정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연구의 측정변수 및 설문문항

변수	문항	측정치표	
피로도	1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드는 정도	
	2	몸 전체의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	
	3	다리에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	
	4	하품을 자주 하는 정도	
	5	멍한 느낌이 자주 드는 정도	
	6	졸림을 자주 느끼는 정도	
	7	눈의 뻑뻑함과 불편함 정도	
	8	업무 시 시 경직 된 느낌의 정도	
	9	업무 시 불안정한 느낌의 정도.	
	10	업무 시 쉬고 싶은 정도	
	11	업무 시 사고하는 것의 어려움 정도	
	12	업무 시 말하는 것이 귀찮은 정도	
	13	업무 시 신경질이 나는 정도	
	14	업무 시 주의 집중의 어려움 정도	
	15	업무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	
	16	업무를 잊어버리는 정도	
	17	업무에 대한 확신도.	
	18	업무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	
	19	업무 시 바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정도	
	20	인내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	
	21	두통을 느끼는 정도	
	22	어깨에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	
	23	허리 통증을 느끼는 정도	
	24	호흡곤란을 느끼는 정도	
	25	갈증을 느끼는 정도	
	26	목 잠김을 느끼는 정도	
	27	현기증을 느끼는 정도	
	28	눈의 경련이 일어나는 정도	
	29	팔다리의 떨림을 느끼는 정도	
	30	아픈 느낌의 빈도	
조직몰입	감정몰입	31	조직에서 경력을 쌓는 것의 즐거움 정도
		32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즐거움 정도
		33	조직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정도
		34	조직이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도
	지속몰입	35	이직 결정에 대한 부담감 정도

규범몰입	36	이직하는 것의 손실 정도
	37	조직 잔류의 중요도
	38	이직의도
	39	조직을 떠난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
	40	조직에 대한 자신의 충성도
	41	조직원들에 대한 의무감
	42	조직에 대한 부채의식

4.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지방청 별로 60부씩을 배포하여 9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802부가 회수되었고,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90부를 제외하고 712부를 SPSS 19.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55명(7.9%), 30대가 236명(33.1%), 40대가 317명(44.5%), 50대가 102명(14.3%)로 나타났고, 계급은 순경이 112명(15.7%), 경장이 131명(18.4%), 경사가 285명(40.2%), 경위가 167명(23.5%), 경감이 11명 (1.5%), 경정이상이 4명(0.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266명(37.4%), 전문대졸이 71명(9.9%), 대졸이 322명(45.3%), 대학원 이상이 49명(6.9%)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인 93명(13.1%), 5-10년이 208명(29.3%), 10-20년이 248명(34.7%), 20년 이상이 161명(22.8%)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생활안전이 252명(36.9%), 수사/형사가 191명(26.8%), 경비/교통이 137명(19.2%), 정보과 28명(3.9%), 기타가 78명(11.0%)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635명(89.4%), 여성이 73명(10.3%)로 나타났다(항목별 결측치는 제외하였음.)

IV. 연구결과

1. 측정지표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아래의 [표 3]과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 Alpha 값이 0.8 이상이어서 측정문항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총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피로에서 총 6개 문항, 지속몰입에서 1개 문항이 탈락되었다.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 비율	Cronbach' Alpha
정신적 피로	12	.804	18.824	62.747	.979
	11	.777			
	15	.712			
	10	.706			
	14	.677			
	20	.660			
	19	.656			
	9	.641			
육체적 피로	16	.614	2.158	7.192	
	2	.852			
	1	.836			
	3	.812			
	4	.799			
	5	.770			
신체적 부조화	7	.751	1.229	4.098	
	6	.750			
	26	.767			
	29	.740			
	27	.734			
	30	.734			
	28	.703			
	25	.678			
감정 몰입	24	.657	5.098	55.253	
	23	.626			
	34	.824			
	31	.806			
지속 몰입	33	.780	2.484	23.010	
	32	.712			
	36	.897			
규범 몰입	37	.884	1.543	5.096	.849
	35	.858			
	41	.825			
	39	.795			
	40	.788			
	42	.780			

2. 각 변수별 기술통계량

표 4. 각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피로도	정신적 피로	2.5144	.86432
	육체적 피로	2.9910	.99340
	신체적 부조화	2.4782	.92735
조직몰입	감정몰입	3.4776	.93724
	지속몰입	3.5577	.67596
	규범몰입	2.9974	.85839

[표 4]는 각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이다. 조사 대상 경찰공무원의 피로도는 ‘육체적 피로’의 평균이 2.9910, ‘정신적 피로’의 평균이 2.5144, ‘신체적 부조화’의 평균이 2.4782 순으로 나타나서 보통수준을 의미하는 3.0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직몰입도는 ‘지속몰입’> ‘감정몰입’> ‘규범몰입’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속몰입과 감정몰입의 평균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규범몰입은 보통수준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1의 검증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피로도와 조직몰입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의 차이

		재직기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신적 피로	5년 미만	2.1988	.68938	3.438	.018*	
	5-10년	2.8012	.85411			
	10-20년	2.4510	.89399			
	20년 이상	2.5842	.89160			
육체적 피로	5년 미만	2.5639	.58259	3.613	.014*	
	5-10년	3.2105	.86466			
	10-20년	2.9580	.95844			
	20년 이상	3.1429	.92538			
신체적 부조화	5년 미만	2.1622	.80680	3.537	.016*	
	5-10년	2.7664	.91772			
	10-20년	2.3407	.92705			
	20년 이상	2.6012	.94476			
성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신적 피로	남성	2.4495	.86324	4.574	.034*	
	여성	2.7974	.83259			
육체적 피로	남성	2.9184	.93130	4.814	.029*	
	여성	3.3277	.73058			
신체적 부조화	남성	2.4101	.93711	4.052	.046*	
	여성	2.7610	.83335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육체적 피로	20 대	2.2937	.80236	3.123	.016*	
	30 대	2.9365	.74221			
	40 대	3.0816	.99562			
	50 대	3.2095	.98729			
신체적 부조화	20 대	1.7794	.72958	3.265	.013*	
	30 대	2.4563	.81696			
	40 대	2.5595	.92834			
	50 대	2.6389	.94045			

*p<0.05,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의 차이를 나타낸 [표 5]를 살펴보면 먼저 재직

기간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는, 피로도의 하위변수 모두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고, 5-10년인 집단의 평균이 유의수준 0.05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피로도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여성의 평균이 남성의 평균보다 유의수준 0.05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는 피로도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의수준 0.05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 기술하였음).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재직기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규범 몰입	5년 미만	3.2434	.80641	2.739	.045*
	5-10년	2.7566	.81059		
	10-20년	2.8725	.86656		
	20년 이상	3.0938	.87457		
계급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속 몰입	순경	4.0556	.48413	3.419	.006**
	경장	3.3040	.56898		
	경사	3.4844	.70356		
	경위	3.6081	.62849		
	경감 이상	3.6257	.53457		
규범 몰입	순경	3.7639	.67213	4.880	.000**
	경장	2.8900	.71110		
	경사	2.7617	.76691		
	경위	3.0362	.91443		
	경감 이상	3.4524	.45786		
성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규범 몰입	남성	3.0774	.83723	7.176	.008**
	여성	2.6471	.89848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지속 몰입	20 대	4.0001	.56983	2.451	.048*
	30 대	3.5429	.54646		
	40 대	3.4444	.70797		
	50 대	3.5591	.78424		
규범 몰입	20 대	3.6944	.75516	4.096	.003**
	30 대	2.8056	.72602		
	40 대	2.9960	.87470		
	50 대	2.9783	.92920		

*p<0.05, **p<0.01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의 차이를 나타낸 [표 6]을 살펴보면 먼저 재직기간에 따른 규범몰입은 유의수준 0.05에서 5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는 지속몰입과 규범몰입이 유의수준 0.01에서 순경집단의 평균이 경장과 경사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규범몰입이 유

의수준 0.01에서 여성들 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라서는 지속몰입과 규범몰입이 각각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20대의 평균이 다른 연령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2의 검증 : 경찰공무원의 피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전에 각 변수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각 변수들이 유의수준 0.01과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각 변수 간 상관 분석

	1	2	3	4	5	6
1	1					
2	.707**	1				
3	.841**	.745**	1			
4	-.293**	-.232**	-.298**	1		
5	-.491**	-.317**	-.470**	.604**	1	
6	-.185*	-.215**	-.216**	.539**	.529**	1

1. 정신적 피로, 2. 육체적 피로, 3. 신체적 부조화
4. 감정몰입, 5. 지속몰입, 6. 규범몰입

*p<0.05, **p<0.01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조직몰입을, 독립변수로는 경찰공무원의 피로도를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선택법을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한 결과인 [표 8]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의 하위변수 모두가 감정몰입과 규범몰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적 피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신체적 부조화는 유의수준 0.05에서 지속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와 조직몰입의 회귀분석

모형 (감정몰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404	.240	
정신적 피로	-.096	.155	-.083
육체적 피로	-.013	.111	-.013
신체적 부조화	-.257	.154	-.236
R ²			.102
F			6.866

모형 (지속몰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473	.147	
정신적 피로	-.262**	.095	-.333
육체적 피로	.099	.068	-.142
신체적 부조화	-.222*	.094	-.303
R ²	.262		
F	21.540**		
모형 (규범몰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26	.206	
정신적 피로	.129	.133	.131
육체적 피로	-.143	.095	-.165
신체적 부조화	-.210	.131	-.228
R ²	.072		
F	4.706		

*p<0.05, **p<0.01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그 동안 조직 구성원들의 피로도와 피로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Saito(1999)의 전체설문을 사용한 연구와 조직몰입의 하위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의 피로도 수준을 측정하고 피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인 경찰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육체적 피로>정신적 피로>신체적 부조화 순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도는 지속몰입>감정몰입>규범몰입 순으로, 지속몰입과 감정몰입은 보통 이상으로, 규범몰입은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5][6][13].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인 경찰공무원들의 피로도는 하위변수 모두에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고, 5-10년인 집단의 평균이 유의수준 0.05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가 가장 짧은 집단의 피로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재직기간이 5-10년인 집단의 피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조직 관리자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경찰조직 내에서 일정기간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을 거친, 어쩌면 조직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구성원들이 높은 피로도를 느

끼고 있다는 사실은, 재직 중 교육 및 측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피로도 관리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피로도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여성의 평균이 남성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일(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경찰의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서는 피로도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4][15].

그리고 이 연구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도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의 규범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고, 계급에 따라서는 지속몰입과 규범몰입이 순경집단의 평균이 높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규범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지속몰입과 규범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높은 사명감과 소속감,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가진 하위계급의 젊은 경찰공무원들이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직업적 사회화 되면서 조직몰입도가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피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피로도의 하위변수 중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부조화가 조직몰입의 하위 변수 중 지속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한 변수들의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피로도가 조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4][6][7][13]. 그리고 조직차원의 경찰공무원들의 정신적 피로도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는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Saito(1999)의 전체 척도를 사용하고, 조직몰입의 하위변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조직 관리자에게 피로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더 나아가 조직관리 관점에서 보면, 경찰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재직기간이 5-10년이며, 계급이 경장과 경사인 경찰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조직차원에서 측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였고, 편의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로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방법의 사용, 특히 경찰조직 차원에서의 경찰공무원의 피로 측정과 피로도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주재진,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42, pp.223-256, 2012.
- [2] R. G. Pearson, “Scale analysis of fatigue checklis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41, No.3, pp.186-191, 1957.
- [3] K. Saito, “Measurement of Fatigue in Industries,” Industrial Health, Vol.37, pp.134-142, 1999.
- [4] D. E. Parker and T. A. Decotiis,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32, pp.160-177, 1983.
- [5] 정우일, 경찰공무원의 피로 수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6] 박병두, 경찰공무원의 피로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7] D. A. Matthews, P. Manus, and T. J. Lan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American Journal of The Medical Sciences, Vol.302, pp.269-277, 1991.
- [8] 장세진, “피로”, 대한예방의학회 (편저),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계축문화사, pp.144-181, 2000.
- [9] T. Chalder, G. Berelowitz, T. Pawlikowska, T. Chalder, G. Berelowitz, and T. Pawlikowska, “Development of a fatigue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37, pp.147-153, 1993.
- [10] J. E. Schwartz, L. Jandorf, and L. B. Krupp, “The measurement of fatigue: a new instrumen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37, No.7, pp.753-762, 1993.
- [11] L. Christensen and M. Piper-Terry, “Comparison of Psychometric Measures of Fatigu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32, No.3, pp.227-234, 2004.
- [12] E. M. A. Smets, B. Garssen, B. Bronke, and J. C. J. M. DeHaes, “The Multidimensional Fatigue Inventory(MFI): Psychometric Qualities of an Instrument to Assess Fatigu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3, pp.315-325, 1995.
- [13] 최응렬, 박주상,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Vol.5, No.1, pp.25-53, 2010.
- [14] 김순석, 이도선, “경찰 유치근무자의 피로심리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1, pp.55-70, 2013.
- [15] 박주상,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3, pp.53-70, 2013.
- [16] Charles A. O'Reilly, III and J. Chatma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Attachment: The Effects of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1, No.1, pp.492-499, 1986.

- [17] N. J. Allen and J. P. Meyer,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63, No.2, pp.1-18, 1990.

저 자 소 개

주 재 진(Jae-Jin Joo)

정회원



- 200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07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08년 3월 ~ 2014년 2월 :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경주)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